



여성폭력 사건 경찰 모두 ‘나의 일’

제주경찰청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 발표
위험별 3단계 구분… 단계별 최고 관리자 수사 지휘
전 부서 아우르는 통합 대응… ‘피해자 보호팀’ 운영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제주경찰청이 칼을 빼들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제1차 추진 사항으로 ▷민감 대응 시스템 도입 ▷위협경보 판단 회의 ▷사건 단계별 대응 강화 ▷피해자 상시 모니터링·지원 등을 실시키로했다.

이번 여성폭력 대응 대책의 핵심은 ‘여성폭력 대응 TF’를 중심으로

로 전 부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진단과 통합형 대응에 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2일 고기철 청장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여성폭력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여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주의·위기·심각 등 3단계로 위험단계를 구분하고 주의 단계는 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서장이 직접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또 각 기능별 담당자가 모여 전

일 발생한 모든 여성폭력 신고에 대해 ‘위협경보 판단 회의’를 개최, 위험 단계를 판단하고 초동 조치 및 수사 방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제주경찰청은 사건 단계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신고 접수 시 과거 신고 이력 등을 분석하며, 현장 출동 경찰관을 영상으로 연결해 효율적인 상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각각 21대의 순찰차에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범죄 관계성에 대해 신고 접수 다음날까지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 수사하며, 보복·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강력팀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위험 단계별 피해자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호신 벨·무선 동작감지기 등 ‘여성안전지킴이 세트’를 우선 지급하며 ‘피해자 보호팀’도 운영한다.

고기철 청장은 “여성폭력 대응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제주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제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종결됐거나 신변보호가 진행 중인 556건에 대해 지난 7일까지 민감 대응 시스템에 따라 위험성을 재판단하는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집단감염 여파에 오미크론 잇따라

7-9일 32명 코로나19 확진
오미크론 누적 감염 18명
오늘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주말과 휴일 사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는 등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집단감염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인 지난 7-9일 사이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7일 9명, 8일 11명, 9일 오후 5시까지 12명 등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83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들어선 169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150명이 확진됐다.

주말 휴일 사이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졌다. ‘서귀포시 어린이집’ 집단감염 관련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으며, ‘서귀포시 초등학교2’ 관련 추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도 잇따라 나타났다. 지난 7일 미국에서 입도한 해외입도객이 오미크론 확진 통보를 받은 데 이어 8일 캐나다와 미국에서 각각 입도한 입도객이 오미크론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도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한편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지인과 술 마시던 40대 흥기 난동… 집행유예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흥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25분쯤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 유흥주점 주방에 있던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우측 제1수지 혈관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흥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먹이 찾던 논병아리의 안타까운 죽음 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에서 먹이 사냥에 나선던 논병아리 한 마리가 폐그물에 걸려 죽은채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시내 아파트 화재로 장애인 숨져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50대 장애인이 숨졌다.

지난 7일 제주소방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14분쯤 제주시 건입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불은 이웃 주민이 타는 냄새와 주방 덕트에서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화재 발신기 소

리를 들은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자연 소화된 상태였으며 인명 수색 중 안방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 남성은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상황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감귤하우스 화재 8200만원대 피해

7일 오전 6시1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감귤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산 8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비닐하우스 3300㎡ 상당 부분과 인근 창고주택,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나무 300본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백금탁기자

공사장 토사 붕괴… 2명 사상

지난 7일 오전 9시52분쯤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A(50대)씨와 B(20대)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로 사망

했고,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기초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용암동굴위 하수처리장 경악할 일”

월정리 주민 철거 촉구 집회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7일 제주시 조천읍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세계자연유산인 용암동굴 위에 세워진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 사진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월정리에 있는 용암동굴과 당처물동굴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이 함께 이루어진 세계자연유산 등재 천연기념물”이라며 “자연유산 동굴 위와 바로 옆에 동부하수처리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악할 일로 즉각 동부하

수처리장 철거 청사진을 제시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와 문화재청, 환경청은 2014년 동부하수처리장을 6000t 용량에서 1만2000t 용량으로 증설하고, 이어서 2017년부터 2만4000t 용량으로 증설을 허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환경 파괴 실태를 조사하고 본래의 자연 모습이 회복되도록 하수처리시설은 철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그랜드보청기

2022년임인년파격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처음 방문고객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을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A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의 사거리 삼거리 2층 북동쪽 바닷가 방향 제주시 서경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와이덱스 보청기

관람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